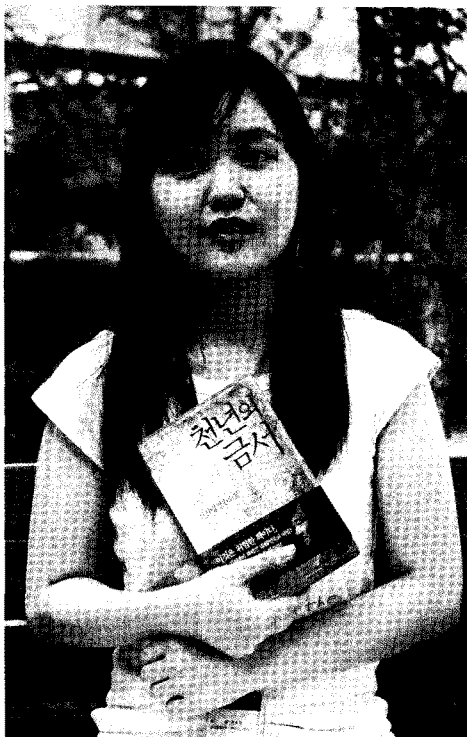


천 년의 금서

한국 핵융합의 획기적인 발전을 주도하며 ETER 플라즈마 제어업무를 담당했던 한 물리학자의 이야기. 비록 모든 배경이 픽션이긴 하지만 김진명 작가의 책 '천 년의 금서'는 NFR에 소속된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 책의 주 내용이고 핵융합 자체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님에도 책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진명 작가 특유의 흡입력도 한몫했다.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이유

역사이야기를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특이하게도 김진명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 즐거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작가의 노력이 눈에 보인다고 해야 할까? 물론 다른 작가들이 집필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김진명이란 작가의 탐구열과 연구는 정말이지 책을 읽는 나를 연거푸 놀라게 한다. 뭐랄까? 그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내기에 독자는 최소한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그것을 진실이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고대국가를 그저 고조선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대한(韓)민국의 '韓'이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작가는 우리나라의 국호인 '韓'이 어디서 왔는지를 오래된 기록을 모두 찾아다니며 유래부터 우리나라의 그 멀고 먼 역사의 뿌리까지 완성도 있게 추적한다. 특히나 단군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현대 과학(천문학)을 이용해서 정확성을 밝혀내는 과정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유래조차 관심 없던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야말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한반도'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국민작가 김진명 씨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기억에 남는 책의 구절

'나라의 힘은 반드시 경제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세웁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는 일야말로 자손을 보전하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 정말이지 공감되는 부분이다. 한국인으로서 나라를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지금도 환웅과 웅녀라는 신화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소설이 현실보다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책의 내용만 보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작가 또한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자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NFR!